

기성용 성폭행 가해자 지목 일파만파

선수 “사실무근”...피해자는 연락 안돼
서울 구단·축구연맹, 진실 규명 초점

한국축구 전체를 뒤엎을 엄청난 폭로가 터져나왔다. 법무법인 현(HYUN)의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K리그 수도권 명문구단의 국가대표 출신 스타(A선수)가 초등 학교 시절인 2000년 1~6월, 동료 B씨(모 대학 외과교수)와 함께 1년 후배인 C씨(전직 선수)와 D씨(현직 에이전트)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충격적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했다.

문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과 축구팬들은 A선수를 기성용(32·FC서울)으로 추정해 지목했고, 선수가 자신의 에이전시를 통해 “이번 내용과 관련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파장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일단 K리그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서울 구단은 철저히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집승 같은 가해자들에게 과연 배려가 필요할까 싶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자는 뜻을 전해(성폭력) 시기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고 했으나, 사건이 워낙 오래 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K리그 비방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건 관련 개인에게 6개월 이상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무 자르듯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서면 내용이 여러 언론 매체들의 보도로 알려지고, 선수의 에이전시가 ‘사실 무근’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서울 구단조차 박 변호사 등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장 기초적인 상황마저 파악할 수 없었다. 구단도, 프로축구연맹도 당분간 자세를 낮추고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굉장히 민감하고 불편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피해 주장이 계속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반발을 이어가면 끊임없는 소모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리그는 당장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정규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여자프로배구에서 시작해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 국내 스포츠 전반으로 학교폭력 사태가 확산된 가운데 K리그의 타 구단들도 선수단 자체 점검을 계획하며 조심스레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잔뜩 가라앉은 분위기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 연인 린지 본부터 트럼프까지
“우즈 위해 기도” “곧 돌아오라”

미국프로골프(PGA) 동료는 물론이고 미국 프로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타들과 전직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골프황제’의 쾌유를 비는 한마음이었다.

타이거 우즈의 사고소식이 알려지자 PGA커미셔너 제이 모나한은 성명을 통해 “PGA 투어와 선수들이 모두 우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3위 저스틴 토마스는 “놀라운 회복을 본다. 우리는 그가 전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응원했다.

스키 스타이자 우즈의 전 연인인 린지 본은 “지금 우즈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트윗했고, NBA 스타인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사고 소식을 공유하면서 우즈를 위한 격려를 당부했다. 이밖에 메이저리그의 스타였던 알렉스 로드리게스, NBA 레전드 아이제야 토마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줄리안 에벨만, 영화배우 아론 테베이트 등 각계 스타들이 우즈의 회복을 염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도 사고 소식 직후 “타이거 곧 다시 돌아오라.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인 2019년 5월 우즈에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6m 굴러도 운전석 멀쩡...우즈 살린 GV80



타이거 우즈는 2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 복합 골절로 다리 수술을 받았다. LA 경찰이 반파된 제네시스 GV80의 전면 유리창을 떼어내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10개 에어백...1·2차 충돌 충격 감소 차체 60%는 초고강력강판으로 구성 차량 앞면·범퍼 완전히 구겨졌지만 사람 타는 1·2열은 완벽하게 보호 “손상 안된 내부가 쿠션 역할을 했다”

타이거 우즈가 사고 당시 탄 차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대형 SUV인 ‘GV80’이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 주 자신이 주최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열린 LA를 찾은 후 지난 21일 일요일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협찬 차량인 GV80을 타고 있었다.

23일(현지시간) 사고는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호손대로의 가파른 내리막 코너 구간에서 발생했다. 주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 내리막 코너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45마일(72km/h)인 구간이다. LA경찰은 이 곳에서 시속 80마일(129km/h)로 달리다 적발되는 차량들이 나올 정도로 속도위반이 많은 곳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우즈는 이날 골프 레슨 촬영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다 전복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왜 났을까? 과속으로 인한 언더스티어 사고 불렀다

내리막 코너 구간에서의 과속은 필연적으로 언더스티어(운전자 스티어링휠을 돌린 각도보다 차가 덜 돌아 코스 바깥쪽으로 나가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속도가 높을수록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



고,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의 차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도로에서 도로 진행 방향을 벗어나 반대 차선인 왼쪽으로 뱅겨나가며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언덕 아래까지 6m 가량 굴렀다. 한계 속도 이상으로 내리막 코너 구간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언더스티어는 프로 드라이버도 막지 못한다. 유일한 해법은

속도를 줄이는 것인데, 이날 타이거 우즈는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 도로 진행 방향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미 너무 높은 속도로 코너에 진입해 컨트롤을 잃어버린 것이다.

●GV80의 에어백과 차체 강성이 타이거 우

즈를 살렸다

중앙 분리대와 부딪힌 후 언덕 아래로 구른 GV80은 엔진룸이 절반 이상 손상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운전석 공간은 안전하게 보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V80에는 충돌 시 충격량에 따라 에어백 전개 압력을 제어해 상해를 줄이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장착되어 있다. 또한 측면 충돌 시 탑승자들 간의 2차 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위 상해를 약 80%(자체 실험 결과) 감소시킬 수 있는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까지 장착되어 있다. 동승자는 없었지만, 2차 충격으로부터 타이거 우즈를 보호해 준 것은 분명하다. 그 외 전복 대응 커튼에어백, 무릎에어백 등 총 10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이 에어백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타이거 우즈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차체의 뼈대도 튼튼하다. GV80에는 강성과 안전성을 높여주는 고강력(인장강도 340Mpa 이상) 강판이 전체 2000kg의 강판 중 1800kg이나 사용됐다. 또 고강력 강판 중에서도 초고강력강판(560Mpa 이상) 비중이 60%를 차지한다. 엔진룸과 트렁크 공간 등은 충격을 흡수하면서 꽤 많이 파손됐지만, 사람이 타는 1열과 2열 공간은 완벽하게 보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 경찰은 “차량의 앞면과 범퍼는 완파됐지만 내부는 크게 손상되지 않아 일종의 쿠션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우즈가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원성재 기자 sereno@donga.com

부상·의문의 교통사고·스캔들...우즈, 파란만장 인생

메이저 15승을 포함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다승 타이인 82승을 거둔 골프의 살아 있는 전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하지만 그는 사건, 사고, 부상, 그리고 부활이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96년 프로 데뷔한 우즈는 1997년 21세에 마스터스에서 첫 메이저 타이틀을 따고 2000년 24세에 모든 메이저대회(마스터스·US오픈·브리티시오픈·PGA챔피언십)을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08년에는 무릎 연골 등 다리 부상을 안고도 US오픈 정상에 올라 자신의 14번째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무릎 수술을 받고 돌아온 우즈에게 불행이 줄줄이 찾아왔다. 2009년 우즈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우즈가 여러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체크스캔들이 터졌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주요 스폰서를 잃고 한동안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했던 우즈는 결국 전 부인 엘린 노르데그렌과 이혼한 뒤 2010년 필드에 복귀했다.

이후 허리부상에 발목을 잡혀 2014년 1회, 2015년 2회, 2017년 1회 총 세 차례 허리수술을 받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때 자동차 관련 약재를 만났다. 2017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 인근 도로에서 자동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반쯤 풀린 눈으로 사진이 찍혀 음주 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진통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량 쇠퇴로 사실상 우즈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2017년 말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9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줬고, 2018년 PGA 투어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 있는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완벽한 부활을 선언했다. 2013년 8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5년 1개월 만의 값진 우승이었다.

2019년에는 마스터스를 제패하는 감동

의 드라마를 쓰면서 골프 황제의 귀환을 알렸다. 2005년 이후 14년 만의 마스터스 우승이자, 2008년 US오픈 이후 11년 만의 메이저 우승이었다. 그해 10월 우즈는 조 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샘 스니드(미국·2002년 사망)와 나란히 PGA 투어 최다승 타이인 통산 82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말에는 아들 찰리와 가족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 함께 출전하는 행복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다섯 번째 허리 수술을 받으며 다시 휴식에 들어갔고, 이번 예기치 못한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여러 차례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그이기에 다시금 부활에 성공해 PGA 투어 최다승 신기록인 83승을 달성하기를 모든 골프 팬들이 바라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